

Tongsung (Tang Fortress) and Cultural Exchange in Yellow Sea

황해의 문화교류와 당성



일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10:00 ~ 18:00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주최: 같이 열리는 화성시

주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후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모시는 글

당성은 중부서해안지역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황해 해상교류의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황해의 문화교류와 당성”이라는 주제로 당성의 역사적가치를 규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삼국시대 문화교류의 연구자들과 중국과 일본 등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모여 발표와 관련 학문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성 시 장 채 인 석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소장 배 기 동

프로그램 일정

9:30 ~ 10:00	등록 Registration	사회: 김성일(한양대학교)
10:00 ~ 10:20	개회식 Opening Ceremony 인사말 Opening Address	채인석(화성시장) 배기동(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장)
10:20 ~ 11:50	<b>기조연설 Keynote Speech</b>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으로서의 당성의 가치 신라문화와 실크로드	배기동(한양대학교) 권영필(상지대학교)
11:50 ~ 13:00	점심 Lunch	
13:00 ~ 14:50	<b>주제발표 I Paper Presentation I</b> 산둥반도와 고대의 한국과 중국의 교류 - 당·송시기를 중심으로 고대 중국과 한국의 해양교류사 남양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국제항로 고대의 일본과 한국의 해상교역을 통한 문화교류 - 서해안문화의 교류를 중심으로	사회: 김정택(한국전통문화학교) Li Huizhu(Shangdong University) Lin Shimin(Ningbo Archaeological Insititute) 윤명철(동국대학교) Akashi Yoshihiko(Kyushu National Museum)
14:50 ~ 15:00	휴식 Braek Time	
15:00 ~ 16:20	<b>주제발표 II Paper Presentation II</b> 고대 신라인의 해외활동 삼국시대 불교의 대외교류사 - 원효와 의상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문화의 전파 경기 중서부지역의 삼국시대 성곽과 당성의 역사적 위상	신형식(이화여자대학교) 진성규(중앙대학교) 이희수(한양대학교)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16:20 ~ 16:30	휴식 Break Time	
16:30 ~ 18:00	<b>종합토론 Discussion</b> 임효재(서울대학교), 명정구(한국해양연구원), 서영일(단국대학교) 김상현(동국대학교),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이송란(덕성여자대학교) 윤석산(한양대학교), 양중승(민속박물관), 정계옥(전 국립고궁박물관), 최영창(문화일보)	좌장: 빅종기(국민대학교)
18:00 ~	만찬 Dinner	



# 찾아오시는 길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 정류소에서 걸어서 5~10분  
자세한 버스노선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bus.seoul.go.kr>)를 참고

## 주차안내

국립고궁박물관 주차장 위치 및 주차 요금 안내  
-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

**주차요금**  
- 소형차(16인승 이하): 기본 2시간 2,000원  
- 중/대형차(16인승 이상): 기본 2시간 4,000원  
- 기본시간 이후 15분 초과시 500원

주차관련문의: 02-725-4503

문의사항)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031-400-5021  
학술대회 담당 신의주 010-3665-3266

# 당성 (Tang Fortress)



당성은 국가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반도 중부서해안에 위치한 대형 산성들 중에 하나이다. 고고학적 역사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성은 고대와 중세시대 중국과 통하는 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산성은 황해를 통한 무역과 문화교류의 중요한 항구로 기록되어져 있다. 게다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 홍씨와 같은 8개의 성씨 가문이 이 지역에 들어와 살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라의 찬란한 불교문화 역시 중국의 산둥반도와 문화교류를 중심지역으로서 역사지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e Tangseong is one of the largest fortress in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es, this mountain fortress is believed the most important gateway toward China in ancient and medieval Korea. According to ancient legends, this fortr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rt for trade and cultural exchange in the Yellow Sea. In addition, historical record of some family groups living in this region, especially family name Hong, came from Tang, China. It is also believed that many buddhist monks of ancient Shilla kingdom traveled to Xian via Shangtung province, China from this port.



## 축성과 구조

성은 쌓은 시기를 달리하는 3중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쌓은 성벽은 구봉산 정상부를 따라 테피식으로 삼국시대 석축으로 축조된 것이다. 두번째 성벽은 이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면 구봉산 동북쪽 능선을 따라 가다가 동남방향의 산복부를 감싸안은 장방형의 포곡식성벽이다. 통일신라시대 테피식 산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쌓은 토석혼축성벽이다. 이 성벽은 신라 하대의 당성진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대 서해안 항로와 당성

고대의 서해안의 항로 중에는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해를 직단하는 항로가 있다.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는 최단거리로 이동되던 곳으로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의 산둥반도의 직항 코스이다. 이 코스는 2개의 코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황해도 장산곶까지 올라간 후에 서진하여 횡단하는 방법과 경기만에서 출발하여 덕적도를 지나 산둥의 등주나 청도로 들어가는 항로이다. 신라에서는 뒤의 항로의 이용이 용이하였을 것이며, 이 때 당성이 주요한 출발지가 되었는데, 지금의 마산포나 화랑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당성과 제사



당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원형(또는 다각형)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건물지는 고대의 대형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산성 본래의 방어적 성격 이외에 제사의식을 거행하던 곳으로 상징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토제마와 철제마가 확인되고 있다.